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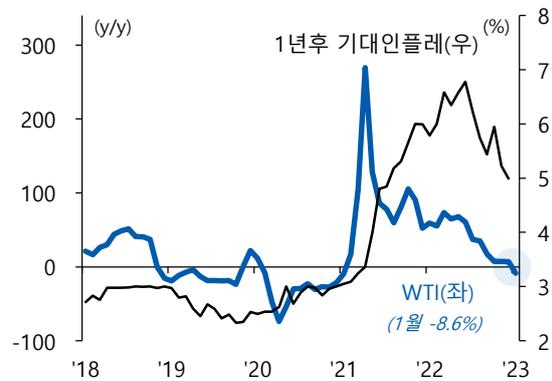


연초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여행과 소비주

1. 다양하게 확인되는 물가 하락 요인

- 미국의 12월 CPI YoY는 전월 +7.1%에서 +6.5%로 둔화. MoM은 2020년 5월 이후 첫 하락(-0.1%).
- 주거비는 추가 상승(YoY +7.5%)했으나, 선행지표(Zillow rent index)를 보면 고점 확인이 멀지 않아 보이는 상황.
- 기대 인플레, 원자재(1월 WTI YoY -8.6%), 공급망 지수 하락도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기대 인플레이션, 원자재, 공급망 등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했던 변수들의 안정화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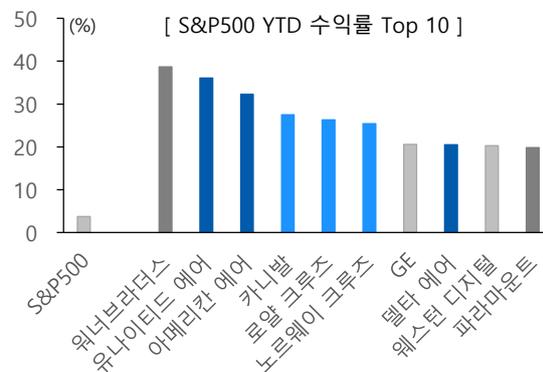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돋보이는 여행과 소비 관련주의 흐름

- S&P500의 22Q4 EPS growth는 -4.1% 역성장 예상. 최근에는 23Q1(-0.1%)와 23Q2(-0.5%)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 전환.
- 반면 여행과 소비 관련 업종의 경우 올해와 내년 이익전망치가 동반 상향되는 흐름.
-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도 강하게 진행. S&P500 YTD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항공사와 크루즈 기업, 2개 기업은 영화사.

여행과 소비 관련 업종은 이익전망치 상향과 강한 주가 상승이 진행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다양하게 확인되는 물가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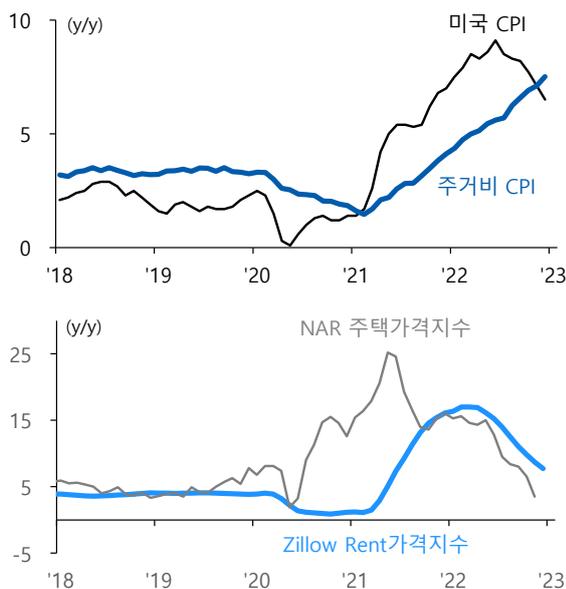
지난주 확인된 미국의 12월 CPI YoY는 전월 +7.1%에서 +6.5%로 둔화됐다. MoM 기준으로는 2020년 5월 이후 첫 하락(-0.1%)이 확인됐다. CPI 구성품 중 최대 비중인 (32.7%)인 주거비의 추가 상승(YoY +7.5%)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주거비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유자 등가 임대료' 역시 관련 선행지표(Zillow rent index)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점 확인이 멀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확인되고 있는 미국 물가의 하락 추세에 큰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뉴욕 연준이 발표한 1년후 기대인플레이션(12월)은 +5.0%로 추가 하락했고, 1월 평균 WTI YoY는 -8.7%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차질 또는 물류 비용(BDI) 상승과 같은 부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Fedwatch에는 2월 +25bp 인상 확률 95.2%, 3월 +25bp 77.3%, 11월 -25bp 인하 확률 34.3%가 반영되어 있다.

[차트1] 하락세가 유지된 미국 CPI.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고점 확인도 멀지 않아 보이는 상황.



자료: Bloomberg,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기대 인플레이션, 원자재, 공급망 등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했던 변수들도 안정되는 흐름 지속.



자료: Bloomberg,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2. 돋보이는 여행과 소비 관련주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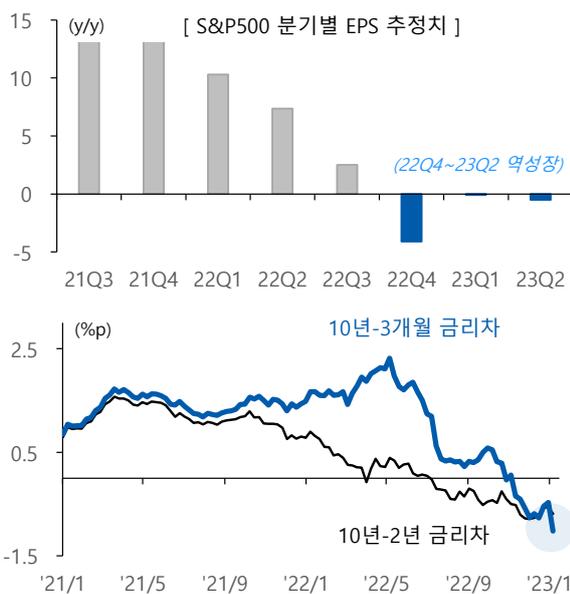
지난주 어닝 시즌이 개막 된 미국의 22Q4 EPS growth는 S&P500 기준 -4.1% 역성장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우려되는 변화는 23Q1(-0.1%)와 23Q2(-0.5%)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 전환했다는 점이다.

MSCI 기준 미국 증시의 23년 EPS growth 전망치는 최근 2개월간 -1.7%p 하향(→+3.4%) 됐다. 유럽 -0.5%p, 일본 +0.1%p, 중국 +1.0%p 등 주요국과 차별화가 있는 흐름이다. 최근 ISM 지수의 동반 위축과 장단기금리 역전이 재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 동조되지 않는 산업도 있다. 여행과 소비 관련 업종의 경우 올해와 내년 이익전망치가 동반 상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소매의 경우 최근 2개월간 +5.9%p, 항공은 +4.2%p, 호텔은 +2.9%p 상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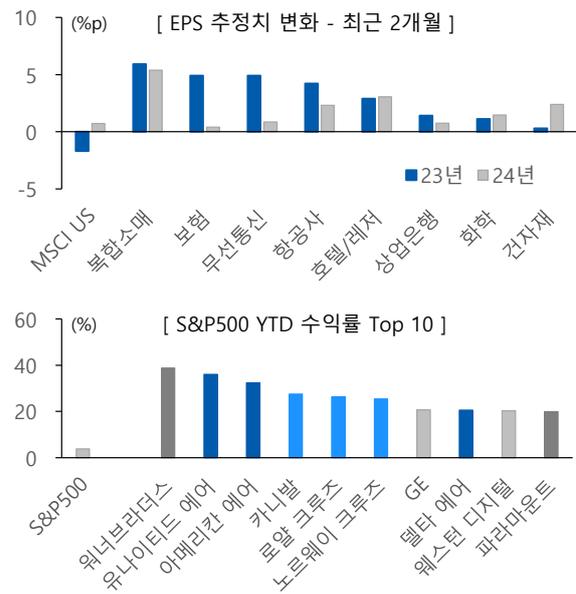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도 강하다. 올해 S&P500 YTD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항공사와 크루즈 기업, 2개 기업은 영화사다. 수익률 3위인 아메리칸에어(+32.3%)는 지난주 4Q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EPS 0.5~0.7달러→1.12~1.17달러)하기도 했다.

[차트3] 최근 S&P500 지수의 23Q1~23Q2 이익전망치도 마이너스 전환. 주요국 대비로도 전망치 하향이 크게 발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여행과 소비 관련 업종은 이익전망치 상향과 강한 주가 상승이 진행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